

자주적 학생회 건설의 디딤돌

현장취재 ... 제2차 확대운영 위원회의

지난 29일 수원캠퍼스 외국어 교육관 1층 한우리 소극장에서는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와 각 단대, 과·운영위원회가 참여한 확대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제기된 안전으로는 현시 기 정세분석과, 총학생회 3대 주력사업 등이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그간 진행중이던 학생 설문조사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과, 2학기 정정화된 도서관 조기 완공에 대한 부분이 토의되었다.

이에 중점적으로 논의된 몇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우선 총학생회 설문조사 사업을 들 수 있다.

이는 하반기 총학생회의 사업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정서를 알아내며 미-노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 분쇄, 성과있는 학원자주화 투쟁 수행, 과학사회 강화라는 하반기 3대 주력사업 홍보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설문지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며 분량이 너무 많아 강의실 배포와 무작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이번설문조사는 설문과정에 대해서도 설문지 자체의 문제점과 함께 간부들의 교양과, 열의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각 단대설

정에 맞는 설문지를 작성해 강의실로 배포하고 총학생회 설문지 역시 간부들을 중심으로 계속적인 조사작업을 수행키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제기된 문제인 분임토의에 관하여서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분임토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분임토의의 필요성과 자주적학생회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확대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높은 복지문제와 학생들에게 민감하게 반응되는 학원자주화(이하·학자)문제에 있어서는 모든일을 학생들과 유기적 결합을 통해 일을 해결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조국통일 문제에 있어서 반미조국통일 비핵군축, 연방제 등 제반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긍정적·인식을 갖고있으나 이에대한 세부적인 인식의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반미조국통일에 대한 선전사업에 박차를 가할것을 결정했다.

운영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위 내용을 붙대 이번설문조사는 처음 시작할때 사전 준비미흡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차츰 많은 학우를 만나면서

하반기 학생회 주력사업을 공유함과 동시에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설문조사에 대한 총괄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한편 설문조사와 함께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도서관 조기완공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먼저 도서관 조기완공에 대하여 정정식(일문·4) 학자추시무국장의 기조 발제가 있었다.

이의 내용은 도서관이 전리의 상아탑으로 학문의 전당이라 전제하고 수원캠퍼스의 경우 학교

계속 추진중에 있는 현 상황에서 더이상 교통문제는 도서관 조기완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참고로 분당선 복선 전철은 성남시 외곽을 거쳐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인 수서역과 지하철 2호선 구간인 선릉역에서 교차 통과하여 왕십리역에 연결 운행되며 이렇게 될 경우 분당에서 수서간은 18분, 왕십리까지 35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한편 공사는 분당-수서 17.2km 구간은 1992년에, 수서에서 왕십리까지 15km 구간은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학생회관 식당 계약 파기를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 결과 약 2천2백여명의 서명을 받아내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서명운동은 그간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져 왔던 학생식당의 식단과 식사의 질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체결되었던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중도파기라는 극단적인 행동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학생회관 식당의 계약은 지난해 여름방학에 체결되어 개관과 동시에 문을 열었다. 그 결과 식사할 하는데 힘들었던 산업대학,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에게는 일단 크나큰 편의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식당이라는 것이 무조건 가깝다고 만족을 주는것은 아니다. 그에따른

다양한 식단과 식사의 질이 따라야만 이용하는 사람에게 만족을 줄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캠퍼스타운성이 극히 미약한 수원캠퍼스의 상황으로서 학생식당의 식단과 질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학생식당에 대한 학생들의 이용도가 이렇게 높게 나타났다면 작년 계약의 주체들은 더욱더 신경을 기울여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나타난 계약의 형태는 제도적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있다. 학생식당은 원래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며 그 손해를 매점의 경영을 통해서 만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학교 내 1, 2, 3호관 식당뿐 아니라 타학교 학생식당 역시 매점과 식당의 동일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학교의 경우 서류상만 매점과 식당의

경영주가 동일하나 실제로는 둘이 분리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작년 계약주의 실수(?)였다. 그 과정에서 이권이 개입했다는 소리고 있고 입자가 학생들을 속인 것이라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개입되고 안되고를 떠나 학생들에게 이토록 중요한 식사문제를 쏜 주체들이 신중을 기하지 못했던 것은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작년 계약주체의 변명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 잘못은 이제 돌이킬수 없는일이 되어 버렸다.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그 조치가 재계약에 있을 것이고, 재입찰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번 실무담당자 들은 작년과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도서관 조기완공 위한 특별예산 요구

운영위원 참여율저조 아쉬움 남아

를 상정할 만한 도서관이 3년전 착공상태로 아직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도서관의 빠른 시일내 완공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먼저 ‘교통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서관의 조기완공은 무의미하다’라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건설중인 분당 전철선이 93년말에 완공이 되고 또 한 이 전철의 신갈까지 연장을

1993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학자추 사무국장은 도서관에 휴게실과 비디오, 오디오를 설치, 그리고 어학실과 세미나실 설치를 통해 단순히 책읽고 공부하는 차원이 아닌 생활·문화 공간으로의 창출을 통해 이용률을 높일 방안이며 이를위해 조기완공의 약속후 내부 공간조정 문제를 학교측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자추 사무국장은 “이와 더불어 도서관의 조기완공을 통하여 학생회관 사회과학대학관, 자연과학대학과의 주변정리를 할수있어 수원캠퍼스의 발전계획안을 약 5년정도 앞당길수 있을것이다”라며 도서관 조기완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시한번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 약1백30여원에 달하는 공사에 대해 재단과 학교측에 특

별추가 예산을 요구하기로 했다

위와같은 기초발제가 끝난뒤 운영위원들은 토의를 통하여 오늘부터 6일까지로 잡힌 각 과단위 개강총회 기간을 통하여 의사결정작업을 펴며 교수 교직원들의 참여를 위하여 연석회의를 갖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을 결의하고 위와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제2의토원 건

설 저지투쟁에 들어갈것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에서는 “도서관 조기완공의 경우 체파대의 국선관 건립, 천문대과 산업대 중측이 현재 진행중이고 학생회관과 자연과학관의 조기 완공으로인한 재정상의 어려움이 겹쳤다고 밝

히고 “도서관의 1층 전면을 대리석으로 꾸미고 사무의 완전 전산화 시스템등을 이루기위해선 공사상 어려움이 따라 앞으로 3년내의 완공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생측은 92년말 까지 완공을 요구하고 있어 학교측과 의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이날 확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관 조기완공이에도 급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관한 정세분석도 논의되었으나 가장 주된논의는 앞에서 밝힌 두가지로 2학기 사업의 주된 맥락이 될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날 확대 운영위원회 의 경우 전체 47명의 운영위원중 25명이라는 적은 인원만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참가한 25명 역시 시작시간인 5시30분까지 2명의 운영위원 밖에 참석치 않아 회의가 1시간이나 늦어지는 등,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논의로 해결해 보겠다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쉬움으로 남는 회의였다.

(취재부)

박사학위 취득자 프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용환

1.경제 2.북한상품의 무역경쟁력에 관한 연구 -소련 및 중국과의 무역을 중심으로- 3.경희대학교학원 4.경희대학교강사

◆경영학박사◆

▲배정홍

1.경영 2.간사인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3.계명대학교학원 4.경북산업대 조교수

▲이상덕

1.경영 2.현금흐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3.North Texas대 대학원 4.한국은행과장

◆이학박사◆

▲김은경

1.화학 2.역상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금속-2-Hydroxy-arylazopyrazolone 유도체 칼라이트의 용리거동 및 동시 분리에 관한 연구 3.경희대학교학원 4.경희대학교 강사

▲전동진

1.수학 2.A Study on the SE-manifold in n-*g-UFT and its conformal change 3.경희대학교학원 4.경희대학교 강사

◆공학박사◆

▲오윤권

1.기계공학 2.배관내에서 자유수면 외동에 관한 연구 3.한양대학교학원 4.조선대학교 조교수

▲홍천표

1.전자공학 2.필라 전송 단말기로 입력된 필기체 한글 자획의 특징 결정 알고리즘 3.연세산업대학원 4.생산기술연구원 기술교육센터 선임기술원

▲박세승

1.전자공학 2.수검속도 개선을 위한 로봇트 매니플레이터의 가변구조 제어기 설계 3.조선대학교학원 4.조선대학교 부교수

◆농학박사◆

▲홍종균

1.임학 2.기상인자가 갯나무 결실량과 모과 및 종자의 형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3.경희대학교학원 4.남양성진 신경과의원 관리원장

◆의학박사◆

▲차승균

1.의학 2.노년층에서 골밀도의 변화와 골소공증 예방을 위한 Calcitonin과 1-α (OH)D3의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 3.경희대학교학원 4.대한병원 정형외과원장

▲권오영

1.의학 2.T 및 B 림프구의 분열원질 자극에 의한 오프림프절내 림프소절의 형성과 분포에 관한 연구 3.부산대학교학원 4.부산 세일병원장

▲박기순

1.의학 2.이온성 조영제의 농도 및 삼투압 차이에 따른 신손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 3.경희대학교학원 4.거제 기동병원 진료부장

제40회 후기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12개분야 총55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각 분야별로 보면 문학박사 7명, 법학박사 3명, 정치학박사 2명, 경제학박사 2명, 경영학박사 2명, 이학박사 2명, 공학박사 3명, 농학박사 1명, 의학박사 15명, 치의학박사 10명, 한의학박사 7명, 약학박사 1명등이다. (편집지註)

범례

①학과 ②학위논문 제목 ③최종 학력 ④현직

◆문학박사◆

▲홍성표

1.국어국문 2.무신집정지 문학에 나타난 현실극복 양상 3.경희대학교학원 4.경희중학교 교사

▲서석준

1.국어국문 2.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부상설’연구 3. 경희대학교학원 4.하동중교 교사

▲박종국

1.영어영문 2.ADVERB CLASSES AND POSITIONS IN ENGLISH 3. 고려대학교육대학원 4.서울고등학교 교사

▲윤진구

1.영어영문 2.HEARY JAMES 소설 연구-서사시점- 3.외대원 4.강원대학교 강사

▲최천택

1.영어영문 2.COGNITIVE ASPECTS OF READING IN ENGLISH 3. 서울대학교육대학원 4.한신대학 부교수

▲조상제

1.사학 2.19세기 후반의 농민항쟁 연구 3.서울대학교육대학원 4.교육부 교육방송 관리관실 연구사

▲김택균

1.사학 2.고대한일관계 왜기사에 관한 연구 3.강원대학교학원 4. 경희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박시홍

1.법률 2.해의부자의 법적 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3.경희대학교학원 4.경희대학교 강사

▲이철

1.법률 2.컴퓨터범죄의 법적규제에 대한 연구 3.미조지워싱턴대학원 4.대검찰청 전산관리 담당관

▲정완

1.법률 2.EC경쟁법에 관한 연구 3.경희대학교학원 4.법무부 전문위원

◆정치학박사◆

▲PEDRO B.BERNALDEZ

1.정치 2.EAST ASIAN SECURITY STRUCTURE AND AMERICAN MILITARY PRESENCE IN THE PHILIPPINES-IN RELATION TO UNITED STATES' EAST ASIAN SECURITY 3.평화복지대학원 4.평화복지대학원 전임강사

▲이원봉

1.정치 2.중국의 대미군사교류에 관한 연구 -동소평체제 이후를 중심으로(1978-1989)- 3. 경희대학교학원 4.경희대학교 강사

◆경제학박사◆

▲김정부

1.경제 2.농지가격의 형성요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 3.건국대학교학원 4.

▲방인찬

1.치의 2.수종의 치주병인균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및 β-lactamase 생산에 관한 연구 3.경희대학교학원 4.방인찬 치과의원 원장

▲장영명

1.치의 2.헬스관 유래 성정인자가 치주조직의 재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3.경희대학교학원 4.경희의료원 치과병원 치주과 임상강사

▲최명애

1.치의 2. 성장에 따른 원위 하악두 관절 섬유층의 변화에 관한 광학 및 전자현미경적 연구 3.경희대학교학원 4.명성치과의원 원장

▲박선희

1.치의 2.Bonding agent의 치수 섬유아세포에 대한 독성 연구 3.경희대학교학원 4.삼화부부치과의원 원장

▲유기중

1.치의 2.타액의 분비량, 점도, 완충능 및 이온농도에 관한 분석연구 3.경희대학교학원 4.유치치과의원 원장

▲홍준표

1.치의 2.이온성 혼합법이 도재와 금속의 결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3.경희대학교학원 4.홍준표 치과의원 원장

▲이수영

1.치의 2.Sarcoma 180의 악플내 이식에 관한 실험적 연구 3.경희대학교학원 4.이수영 치과의원 원장

▲김세영

1.치의 2.마우스 악하선의 화학적발암과정시 상피 성정인자의 변화에 관한 면역조직화학적 연구 3.경희대학교학원 4.김세영 치과의원 원장

▲남순현

1.치의 2. 완전탈구된 치아의 재식 전 치근면 약제처리에 관한 실험적 연구 3.경북대학교학원 4.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전임강사

◆한의학박사◆

▲홍미숙

1.한의 2.적양생강탕이 알콜성 간손상에 미치는 효과 3.경희대학교학원

▲이봉주

1.한의 2.도인의 규격화와 Triolein의 약효에 관한 연구 3.경희대학교학원 4.양진관 한의원 원장

▲송석호

1.한의 2.정하에 응용되는 귀출과정당과 가미귀출과정당의 효능에 관한 연구 3.경희대학교학원 4.송 한의원 원장

▲김달래

1.한의 2.태음인 청성연자탕과 청폐사간탕의 면역반응과 항알레르기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3.경희대학교학원 4.명지한방병원 내과과장

▲김영태

1.한의 2.목향술기산 수침액 및 필미술기산 수침액의 효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3.경희대학교학원 4.강남의림 한방병원 원장

▲윤석운

1.한의 2.청금강화탕 인삼사포탕의 효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3.경희대학교학원 4.동원한의원 원장

▲김영관

1.한의 2.모려의 규격화와 Taurine의 약효에 관한 연구 3.원광대원 4.상계한의원 원장

◆약학박사◆

▲김형수

1.약학 2.Phenol 화합물의 독성과 새로운 장내미생물의 Phenol Sulfotransferase에 관한 연구 3.서울대학교학원 4.국립보건안전연구원 연구사

▲김종헌

1.치의 2.치주병소 조직내 림프구 분포 및 활성도에 관한 면역조직화학적 연구 3.경희대학교학원 4.김종헌 치과의원 원장